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성경암송대회 개최, 4명 영예의 수상

지난 주 예선 거쳐 7일(금) 본·결선 ... 오늘 찬양예배시 시상식

교회설립 6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가 7일 교회에서 열려 이옥현 권사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늘 찬양예배 시 갖게 된다.

이날 열린 성경암송대회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이들 네 사람이 야고 보서를 완벽하게 암송하여 이번 대회 수상자로 영예를 얻게 된 것. 이옥현 권사(소망부)가 믿음상, 이민웅 군(중등부)이 소망상, 노창훈 군(대학부)이 사랑상, 이영옥 집사(중등부 교사)가 희락상을 각각 수상하게 됐다.

야고보서 전장(1~5장)을 외우는 이번 암송 대회의 예선은 10월 30일(금)과 11월 2일(주일) 교회학교별로 각각 행해졌다.

예선에서 선발된 이들은 11월 7일(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1층에서, 장년부와 소망부,

각 부서 교사들은 2층에서 본선을 치렀다. 연이어 2층 예배실에서 실시된 결선은 본선에서 선발된 네 명의 결선자들이 최종 결선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는 정확도, 자세, 청중의 반응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정확히 암송하는 것 뿐 아니라 회중에게 시선을 잘 주는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표하는 모습을 잘 갖추었는지 등을 점수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암송대회는 교회설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것이다. 또한 일년 내내 말씀을 사랑하자는 뜻에서 작년 암송대회가 끝난 직후 올해 개최할 암송대회의 성경범위를 야고보서 전 장으로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암송대회에서는 유치부 학생 중 권보화, 김소연, 이성화, 장운지, 최소영 등 다섯 명이 야고보서 1장을 또박 또박 외우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인 유년부 학생(이평화)이 1장에서 5장까지 모두 외우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 어머니(이영옥 집사)와 아들(노창훈)이 동시 출전해 모자 간의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각 부서의 예선에서 선발되어 본선에 올랐던 이민화, 이점숙, 전금녀, 이평화, 이내영, 박창수, 이옥현, 이민웅, 노창훈, 이영옥 등 열 명의 성도들이 온 교우 앞에서 암송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 순례자 컬럼 ✦

공동체 의식

지구촌이라는 말은 6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알려져 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이웃이 되었고 '우리'라는 개념 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어의 '우리'는 일인칭 복수형이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땅을 파고 사는 곳을 움이라 했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우리가 되었다. 같은 마당에서 사는 것을 마을이라 하고 구역을 넓히면 고을이 되고 그보다 넓은 곳을 서울이라 불렀고 큰 울을 한울이라 했다. 가깝게 사는 이웃을 한울 안에 산다고 하여 오늘날 아시아가 한우리가 되었고 세계가 한우리 안에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한울안에 몰아넣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확인해야 한다. 이웃을 우리로 부르는 공동체 의식은 일체감, 통일성, 전체성 그리고 자발성이 그 특징이다. 더불어 살고 '일하고 피차 편안함을 느끼며 충격없이 서로 친숙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비전2000

천국복음을 새싹들에게!

어린이 찬양전도집회 · 청소년 전도특강

"천국복음을 만민에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비전 2000운동이 5주 째로 접어들었다.

전도와 기도운동이 무르익어 가는 중에 이번 주에는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각각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찬양과 특강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초등부찬양대가 주관하는 어린이 찬양발표회인 "작은 순례자의 합창"이 15일(토) 오후 5시 교회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비전2000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행사이다. 초등부에서는 해마다 비전2000운동 기간 중 이 행사를 가져왔다. "작은 순례자의 합창"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이날 집회는 제 I부 예배를 먼저 드린 후 제 II부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발표회는 오르간 독주, 성서낭독, 초등부 찬양대원들의 합창, 중창, 악기 연주, 뮤지컬 등의 순서

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믿음의 생활 등 복음의 내용을 담은 초등부발표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중등부에서도 15일(토) 오후 2시부터 중등부실(403호)에서 "내작품 초청잔치"를 마련하고 "현대 청소년의 고민과 교회생활"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김원균 선교사(겨자씨선교회 대표). 이 특강에는 중등부 학생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관심있는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히 중등부에서는 이번 특강이 우리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을 온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중등부에서는 비전2000운동 기간 중 잃은양 찾기 운동이나 학교 앞 전도, 교사특별 기도회 등 활발한 전도와 기도 운동을 펴고 있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23장 1 - 16절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 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23:1 - 16).



이종운 목사

오늘 본문은 90세에 이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들—에게 준 말입니다. 거기엔 갈렙과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 놓고 자리를 이양하는 자리에서 한 여호수아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난 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분할하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정착을 완료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큰 구원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승리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 혹은 이방신에 의해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 삼아 신앙의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의무에 관하여 강조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책 즉 성경을 새 지도자들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수23:11).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당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진실되게 걷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잡혼을 금함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의 잡혼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모두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짓 신을 좇고 악을 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를 금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사시대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을 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같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악마의 전술은 항상 웃는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고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침내 믿는 자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파괴시키려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고전 6:14 - 16).

4. 선택을 촉구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들에게 선택할 필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같은 선택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도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 속에서 ‘선하다(good)’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의 실은 참으로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밝힙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는 어떻게 선거에 임할 것인가?”

이 글은 11월 3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김상철 장로(제 4교구,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한미우호협회장)의 강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따르며, 역사는 민중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재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논하고 선거국면에 처해서도 '정치는 현실'이요 '선거는 세상사'라는 이유로 성서와는 별도의 척도를 가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라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지도자를 택하여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민중의 다수결이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과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기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오늘날의 시대상

오늘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은 심히 암담하고 불안정하며, 실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을 때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화급한 일은 김정일의 개전유혹을 단념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정권은 늘 세론의 향배와 지지율에 —흥——비하고 있지만, 실은 내분이 끝없고 지역대립만 조장하고 있다. 건국이념과 국가의 기초를 수호하고 다지며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정당을 찾아볼 수 없다.

노사대결이 조장되고 불법파업이 용납되며 근면성이 감퇴되고 기업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거대기업집단의 연이은 도산으로 국제신용이 추락하고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치와 오락을 즐기며 윤리의식과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였다.

민족전체로 볼 때 북한주민은 독재자의 철권에 불합치 압제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의 동족에 대한 증오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언제 전쟁을 일으켜 참혹한 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3.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국사회를 향해 여러차례 계속적으로 시대적 경고를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이 있을 후 한국 사회가 과연 진정으로 변화하였던가? 우리가 과연 무슨 수로 이미 경고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다.

첫째, 우리의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불순종이다.

둘째, 우상숭배와 반지성의 죄이다.

셋째, 안일과 교만의 죄이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사의다. 도저히 마냥 계속될 수 없는 일이다. 대오각성치 않는 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이때를 위하여 재앙의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저 북한 지배집단에 의하여 잘 준비된 전쟁의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4.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은 좀 특별하다. 종교적으로 볼 때 선교역사 1백십년만에 팔복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신앙의 열정이 유별나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관한 한 일찌기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사례이다.

또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결과 경쟁은 그 실상의 대비를 통해서 세계인류로 하여금 공산주의는 결국 허위와 폭압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인도와 보호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는 뜻 즉 마지막 때에 세계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주력부대로 삼으시려는 데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까지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 그러나 이제는 세계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민족은 지상에서 한국민족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세계열강, 또하나의 강대국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민족지도자의 상

우리의 국가목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른 나라 되는 데 있다면, 우리의 국가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자요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또 인내와 희생의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인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통일과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사랑과 희생의 지도력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사랑과 희생의 지도력이야말로 실은 자기중심과 무한경쟁의 21세기에 모든 나라, 전 인류가 갈구하는 리더십이다.

6. 교회는 선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첫째,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의 주제는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이루어 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사탄 마귀의 체계가 무력하게 되도록 간구하는 데 있을 것이다.

둘째, 자고하고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한 죄, 안일하고 무사했던 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의 세력과 대결하지 아니하고 타협했던 죄, 진리 앞에 겸손치 아니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죄를 각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셋째, 판단의 척도에 양보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정직하고 의롭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만일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면 그런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7. 맺음

대통령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하겠다. 모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거나 허용하셔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말씀을 믿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1 - 13).

교회학교 소식

대학부 정기총회

대학부는 지난 주일 제 5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노창훈 군, 부회장에 음영경양을 각각 선출했다.

고3기도회 진학과 취업을 앞둔 이들을 기도로 지원하는 고 3기도회가 지난 주에 고등부실에서 있었다.



신간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III(제 9 - 11장)



로마서 III / 336면 / 값 7,000원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강해 세 번째 책이 필그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교생신학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9 학기와 10학기에 이종운 목사가 강

해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로마서III'는 유대인 문제를 다룬 로마서 제 9 - 11장까지의 강해가 수록된 것으로 칭의의 주제를 다룬 '로마서I' (제 1 - 4장)

과 성화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II' (제 5 - 8 장)에 이어 나온 것이다.

필그림 출판사에서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계속될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12 - 16 장 강해가 끝나는 대로 '로마서IV'도 출간할 예정이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우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자는 서문에 "탄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처럼 깊이 파면 팔수록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복음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변증으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인정된 로마서는 그 자체가 신학적 해설서"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 간행된 '로마서III'를 비롯하여 이종운 목사의 저서는 교회 2층 테이프포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가 출판하여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등정

- ◆ 김성규 · 문혜진 성도 가정(6교구 강서 · 영등포다락방)은 10월 30일 득남
- ◆ 이정일 · 안지현 성도 가정(5교구, 사당다락방)은 11월 4일 득남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윤봉준 장로 · 김명화 집사 가정과 이관규 · 이순영 집사 가정에서 제공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7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송두심	이정자 장수웅 안숙자	오순배	임종순 최선미 오광일
	김선빈		김계숙
손영희	문용마 이준석 이동신	무 명	정태진 최이정
장은규	허민환 김기수 조혜림	채수풍	조광기 임종진 홍봉권
오해진	정 진 최세나	무 명	사양순 송복신 신희재
양은희	지혜은 한화숙 송장숙	무 명	고수영 황신각
김명심	변재관 조영라	강오내	강산규 이나연 방수진
홍성모	이재철 이영식 방종영	무 명	이인경 이수정 김은남
우서운	임윤아 이주연		조성진
김용호	박정용	장덕훈	권분조 장윤경 박진근
무 명	남재우	서지영	김희정 손윤경 노화정
김병용	나순심 김용은		박수현 정승환 김주연
남미희	조동혁 최호심 서순희	김현준	송진호 이정인 조항서
이태윤	이덕조 김병순 김종성	조남현	임홍택 김지은 김종혁
	이태순 백주현 이태라	김승민	박호진
	이태원 박정희 김진수	정희진	이은정 장지희
	이점순	홍진선	송지은 홍현아 전은정
이부자	김지선 허경화		박영진
이태원	유복열 이복동	권재현	성유정 유민로 김진문
송명주	이종순 황유진 유계순	노신균	윤순환 이원재
	정분미	무 명	김희정 손윤경
송혜숙	신경호 김병선 정소영	무 명	서서연
	신현호 김원중 안수진		김유진 조문숙
이점숙	이경순 신윤근 김일래	강혜진	정경애 박선옥 여미현
	신명근		김지은
전정순	전영계 김해숙 전광남	박윤정	박혜원 박광원 박성원
	전광일 이명자 정미옥		이소연 이상필 이창휘
	장인호 정인수 정문석	김민정	최세운 장예영 이수진
	정보람 정재석		성주영
조선영	조한식 조영석 조월선	박경원	백종호 박치영
	김주탁 권 연 남재구	음영경	음득근 김윤희 정유진
	김영석 김진봉 주학실	오지영	장진희
	김명선 유병숙 김향숙	소은희	이지은 이지현 이지원
	김명주		최소연
나기태	이해남 이규진 정명희	이송선	김선영
무 명	이영주	김두현	차정환 염유섭
	이정자 장수웅 김선빈	소원섭	변재국 정원민
장성국	안숙자	노애리	송애니 이재혁 신사라
	김종목 정성미 이익창		최지운

o... 태신자카드는 97비전2000운동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주일·1·1부 예배 헌금시간이나 예배일 입구의 헌금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2. 중등부와 초등부의 초청전도집회를 위해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4.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